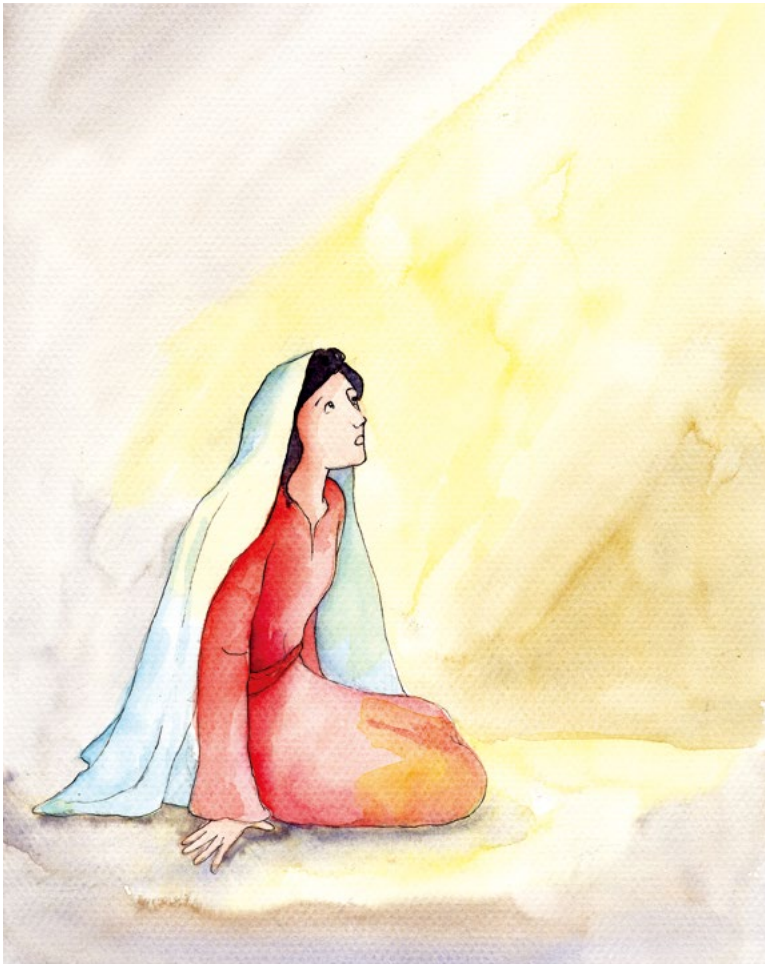


# 25

##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8절~2장 23절, 누가복음 1장 26절~38절,  
2장 1절~39절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는 곧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갖자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곧 요셉에게도 나타나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신과 약혼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진 것이요.”

요셉은 이 말을 믿고 마리아와 결혼을 했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헬에 갔습니다. 그런데 빈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 주겠다. 지금 이 땅에 구세주가 태어나셨느니라.”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던 동방의 박사들이 빛나는 별 하나를 보고 외쳤습니다.

“저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별입니다!”

박사들은 별을 따라 새 왕을 만나러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궁전에 도착한 박사들이 물었습니다.

“새 왕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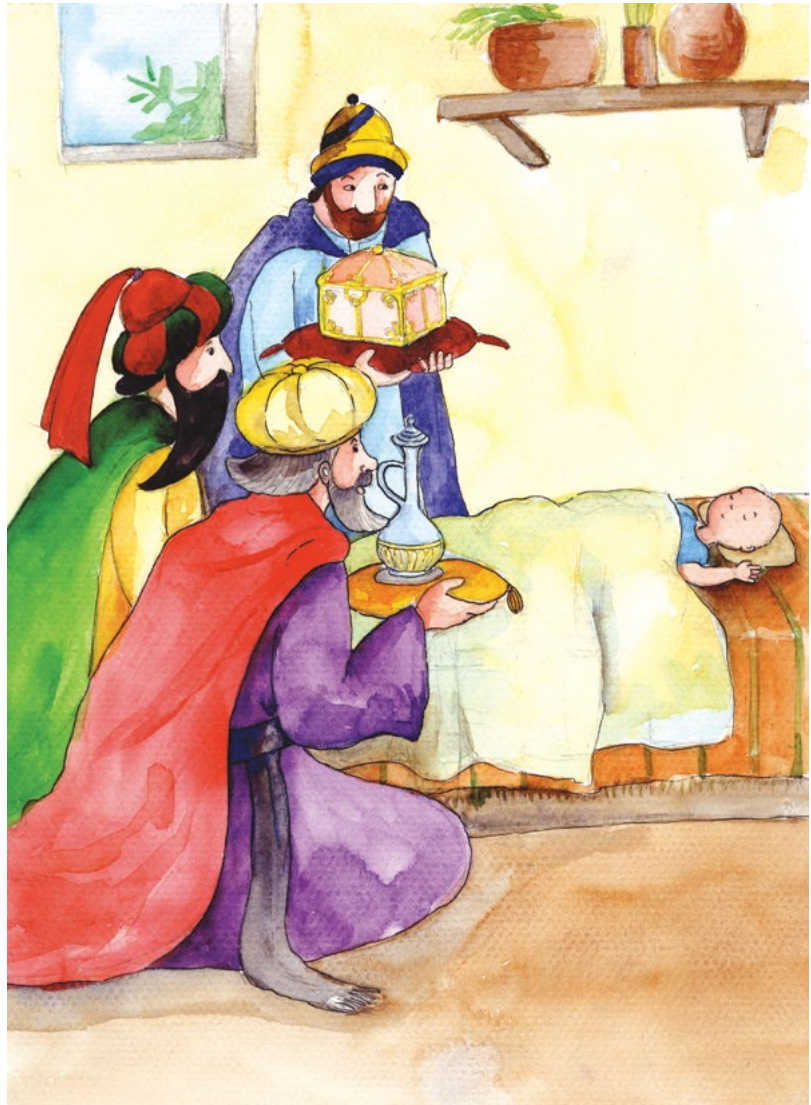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헤롯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왕인데 다른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아기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궁전에서 나온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예수님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헤롯 왕이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아래의 남자아기는 다 죽여라.”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빨리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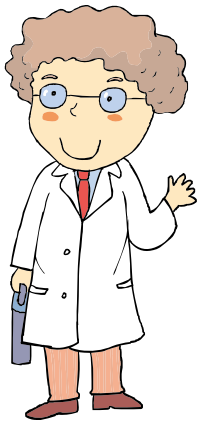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듣고 잘 생각해 보세요.



다운이는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다운이네 집은 가난해서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병을 잘 고치는 의사 선생님이 다운이의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다운이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다운아! 내가 돈을 받지 않고 너의 병을 치료해 주마.”

다운이는 너무너무 기뻐서 의사 선생님께 감사했습니다.

? 의사 선생님은 왜 다운이네 집에 가셨을까요?

? 의사 선생님을 보고 다운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전서 1:15)



## 알아볼까요

### \* 크리스마스의 유래

우리나라 사전에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생각할까요?

크리스마스는 로마시대 사람들이 12월 25일을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일로 삼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350년에 로마 주교가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목자가 밖에서 밤에 양 떼를 지켰다”라는 구절로 보아서 그때가 12월 날씨처럼 추운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